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개역, 시편 23:1~6]



늘이 추석전야라서 전례대로 모두 고향 가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끼리 아는 본문을 가지고 예쁜 그림을 감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본문을 봅시다.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해는 태양을 가리킵니까 손해를 뜻합니까? 이 단어는 하늘의 태양이 아니고 해로운 것을 가리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게 닥쳐올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릴 때 상을 못 받아서 그런지 이 구절을 읽으면 늘 학교에서 주는 ‘상’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은 무엇을 뜻합니까?

잔칫상.

저는 밥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잔칫상이면 저보다 좀 더 낫네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칫상을 풍성하게 차려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지 마시고 제가 읽을테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보십시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이러면 어디 틀린 데가 있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렇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가 아니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말과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차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음에도 나 스스로 만족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읽는 분들이 꽤 됩니다. ‘틀렸으니까 고치세요’라고 가르쳐 줘도 다음에 읽을 때 보면 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읽더라고요. 왜 저렇게 틀릴까? 생각을 많이 해 보았는데 주일학교 출신이기 때문이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다닌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라고 입에 익숙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부르는 찬송에 ‘내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으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 가사를 그렇게 고쳐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는지 정말 탄복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아이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면 만족이지만 아무 것도 없는데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이 아이들에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에 맞게 가사를 살짝 바꾼 건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 같은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필요한 걸 다 채워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감사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내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과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주 다릅니다. 적어도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늘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어느 성경인지 모르겠지만 개정하면서 23장 1절의 ‘내가’를 아마 ‘내게’라고 고쳐놓은 모양입니다. 그건 굉장한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잘못입니다. 남이 볼 때에는 내게 부족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여호

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하나 더 해 봅시다. 본문을 보지 마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틀린 데 있어요? 보지 마시라니까요.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주일학교 잘 안 다니신 분이시죠?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나 어른들이 즐기는 찬송이나 둘 다 '잔잔한 물가'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쉴만한 물가로 되어 있습니다. 잔잔한 물가나 쉴만한 물가나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물들은 대체로 급류입니다. 급하게 흐르는 물가는 쉴만한 곳이 아니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3등분을 한다면 1, 2절을 따로 떼어내고 3, 4절 그리고 5, 6절을 갈라 낼 수가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 다윗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찾아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모두 면접 시험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혼자서 양치고 있었죠. 왜요?

감히 안돼서.

맞습니다. 감히 안돼서. 아예 후보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어리니까 넌 나가서, 흔히 하는 말로 '애들은 가라'죠. 어른들 모여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넌 나가서 양이나 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려와서 기름부음 받았습니까. 어릴 때 이렇게 양을 치고 있던 모습이 1, 2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 4절은? 특히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언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그렇죠. 꽤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적어도 15년 내지 20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 힘들었던 세월을 3, 4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스럽게 쫓겨다니던 장면이 생각나야 그림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 6절은 무엇에 대한 노래입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걸 언제적 같아요? 고통스런 세월 다 지나고 왕이 되어서 평안한 나날을 보낼 때의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전 생애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 같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면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다윗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고통도 없었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디예요? 그게 3절과 4절, 특별히 4절이죠. 여호와와 나의 목자이심에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적어도 십 수년간 쫓겨다녔습니다. 아니 그것만 아닙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다윗이 고통스런 세월을 얼마나 겪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 가면서 양식을 구해가기도 했고, 또 이름이 이상한 사람이 있죠? 나발이라는 사람, 그 집에 양식을 얻으려고 부하들을 보냈다가 심한 모독을 당하기도 했죠. 심지어 자기 부하들의 손으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처자를 적군에게 빼앗기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에 피난을 갔을 때 신분을 감추고 들어갔다 들켰습니다.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간신히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 세월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집안에 칼부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다윗이 받은 복도 말할 수 없이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 아들들을 보세요. 만이요? 형제간의 부끄러운 일로 동생 손에 죽었습니다. 동생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섰다 결국은 전쟁터에서 다윗의 부하 손에 죽었습니다. 또 한 아들은 왜 죽었는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을 살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런 어려움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다윗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닥치지 않나요? 그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하기만 합니까? 믿는 성도에게 어려움이 안 닥칩니까?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삶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덜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윗이 겪었던 것보다 더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라고 합니다. 동시에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증거가 있어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쫓겨다니다가 마침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추격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장수가 이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부은 하나님의 종을 내가 손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자락을 살짝 베어낸 것조차 마음에 찢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단 하나 뿐입니다. 이런 일이 한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굳이 내가 애를 써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사람이 다윗에게 상을 받으려고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면서 증거품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아말렉 소년이 어떻게 됐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을 하고 있다는 건 누구도 압니다. 그 원수를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이라면 엄청난 상금을 받겠죠. 그러나 아말렉 소년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뭘니까? 감히 나도 손대지 아니한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종을 내가 손댔다는 말이나?

다윗이 속았습니까 안 속았습니까? 이 질문은 어려워요. 다윗이 속았습니까 안 속았습니까? 속았습니다.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말을 굳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소년이 사울을 죽인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소년의 말을 굳이 듣고 아말렉 소년을 처형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 소년에게 속았습니다. 속아서 이 소년에게 상금을 주었다면 다윗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속긴 속았습니다. 그럼에도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도 손대기를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댔단 말이지? 상을 준 것이 아니라 처형해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속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고, 쫓기는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 목숨이 사울의 손에 달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고백의 증거가 되는 셈이죠.

다윗이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걸 확신했다면 다윗이 할 일은 뭘니까?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양을 보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 양이 할 일이 뭘니까? 딱 한가지 뿐이에요. 목자를 따르지만 하면 되죠. 목자를 따르면서 혹시 늑대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자가 나타날지 늑대가 나타날지 이것은 양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

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라’ 고백을 하면서 나는 어떤 양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인지, 아니면 목자와는 관계없이 혼자 걱정할 것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목자되신 여호와를 잘 따라갔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품을 떠나서는 안되죠? 주일 하루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천벌을 내리실지 몰라서 빼먹고 싶긴 싶은데 무슨 벌을 주실지 모르니까 예라 모르겠다 교회로 가자? 용감하게 탈출해서 딴 곳에 놀아도 마음이 편치 않지요? 이런 류의 신앙을 가지신 분이 참 많아요. 십일조 한 번 빼먹으면 도둑놈이라 하더라. 그래서 아깝긴 아깝지만 달달달 하면서도 내야 합니까?

다른 교회 어느 분이 주일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망설였답니다. 낚시갈까 교회갈까 망설이다가 제철 다리 건너 강원산업 앞 큰 길에서 차에 부딪혀 버렸죠. 탁 부딪히는 순간에 “아이고 진작 교회갈건데”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일어나서 상대방 운전수를 봤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는 주일날 낚시 안 갈거다” 그랬답니다. 그 사고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고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주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일을 범했다, 아니면 예배 시간 한번 빼먹었다, 헌금을 좀 잊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실 것 같아서 꼼짝없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다윗이 영원히 여호와와 집에 거하리라는 표현이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그런 마음들을 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라고 해도, 떠나라고 해도,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 생각하면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베풀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벌을 주실지 두려워서 못 떠나겠다는 이런 신앙의 초보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것은 그 여호와와 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따, 예수 좀 믿는다 하나까 주일에 종일 교회에서 지내고도, 수요일 가야지, 구역예배 있지, 평신도 신학교 있지, 전도하러 가라 그러지, 저녁에 기도회 하라고 그러지,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눈총주지... 사실은 효자제일교회는 다니기 좀 어려운 교회입니다. 한번쯤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넘어가면 뭘텐데 안 나왔다고 이름 불러가면서 물어대지,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도시키지...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눈총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게 감격스럽고 기뻐서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고 인자하심을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베풀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다윗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한 마디가 들었어요.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일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취소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써먹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기도죠?

모세의 기도.

예,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저 범죄하고 날마다 반역하는 무리들을 깨끗이 없애 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했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저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 백성을 끌고 가서 광야에서 다 죽였단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모세가 두 번이나 하지요. 하나님도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영원히 내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다윗은 뭐라고 묘사하는지 한 번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일까요? 상을 베풀어 놓았는데, 잔칫상 말이에요. 참 맛있을 것입니다. 맛있고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다가 차려 놓았어요? 원수의 목전에 차려 놓으면 더 맛있습니까? 이런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남의 음식을 뺏어 먹을 때가 더 맛있어요. 죽도동에 하이폰드 빵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밤 식빵을 처음으로 개발해서 한 때 우리나라 밤 값을 올린 장본인입니다.

숨씨가 있으니까 그분더러 누가 물었어요. 빵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니까 하니까 이 분 얘기가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대요. 어느 빵이 맛있느냐 따지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으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배불러서 먹는 것보다는 배고플 때 먹는 것이 맛있고, 남하고 나하고 같이 먹는 것도 맛있지만 남은 못 먹어서 걸떡거릴 때 나 혼자 먹고 있으면, 좀 취미가 안되었긴 안되었지만 맛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놓으셨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이 원수가 한 때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상을 차려 놓으신다는 고백입니다.

잔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잔은 넘치도록 채웁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잔은 꼭꼭 채우는 것이라고 그러대요. 넘치게 채운다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기도한 분들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대로 딱 들어주시더라 그런 예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요만큼 하고 받기는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아들하나 달라는 기도였죠. 그게 내용이 썩 좋은 기도입니까? 적어도 민족을 위해서라든가 교회를 위해서라든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껏 아들 하나 달라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기도잖아요? 오늘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아들을 얻고 난 다음 한나가 부른 기도를 꼭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 세상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나가 아들 하나 달라고 간절하게 매어 달렸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모르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면 풍성하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 이 효자제일교회를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되고 감격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지나온 연혁들을 한 번 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 지냈는가! 그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참 길고 어려운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려고 할 때에 현재 효자제일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 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원수 갚아 주십시오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남았습니까? 오로지 남은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 어려운 시절 힘든 고비고비를 다 돌아보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감사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인도한다고 말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뭐하는 겁니까? 땅 짚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는 좀 길쭉하고 끝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휘어진 것 보셨죠? 목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짐승들과 싸울 때 봉술하듯이 사용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끝이 이렇게 휘어진 것은 좋은 용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늑대와 사자와 싸울 때는 이게 무기가 되지만 양이 말 안 듣고 옆으로 나갈 때는 이 끝에 휘어진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목을 걸어 당기기 딱 좋잖아요. 임마 이리와! 목자가 나를 지팡이로 인도한다는 말은 무기로 쓰면서 동시에 내가 옆길로 나아가면 걸어서 끌어당기는 역할도 하더라는 고백입니다.

지팡이 말고 막대기도 있네요. 막대기는 뿔에 쓰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물매를 돌릴 때에도 사용했을 것이고 짐승과 싸울 때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양을 어떻게 기르고 치는지 한 번 보아야 말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분이 이런 설명을 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양이 지독하게 말 안 듣고 못된 놈이 있으면 일부러 다리를 두들겨 버린답니다. 그런 다음에 싸맬 때 부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의 못된 성미를 꺾기도 하시고 인간이 안되겠다 싶으면 내게 혹독한 매를 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더 꺾여져야 하고 좀 고쳐져야 할 점이 있다면 꺾이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 한편이 그저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동 시절에 아버지께서 맡겨 놓은 양을 잘 돌보지 아니하고 피를 부리거나 농땡이를 쳤으면 감히 여호와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감히 여호와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잠시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나이 많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 편안함을 누릴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시 한편 같은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시 한편을 남깁시다. 우리의 삶이 다윗의 고백 같은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